

Volume 10 • October 2010

CanadaWood Newsletter

Korea Director's Memo

지난 9월 14, 15 양일간 제6차 한국 - 캐나다 주택분야협력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 되었다. 한-캐 주택분야협력위원회는 2년에 한번씩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호스트하여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와 캐나다 주택청을 주축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more

특집기사 |

2010 캐나다우드 미디어/디벨로퍼 미션 참가

나무와 목재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한 목재로 지을 수 있는 건축공간의 디자인과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캐나다에서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등등 이러한 물음에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벤쿠버행 비행기를 타게 ... more

캐나다우드 | 대학연계교육

경희대 & 아주대-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지난 8월 초 안양시 학운공원에서는 경희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이 5일간 흘린 땀의 결실을 축하하는 "2010 경골목구조 워크샵" 수료식이 있었다. 워크샵에 참가한 20여명의 학생들은 "60㎡가 넘는 시설물을 ... more

국내 목조건축 사례 1

목구조 상가주택의 가능성과 전망 - 백현동 상가주택

그 동안의 현장경험에 비춰 볼 때 목구조 공법이 갖는 우수성을 확신하기에, 건축주들을 만나면 목구조 건축물의 장점들을 역설하고 한다. 이에, 열린 마음으로 시공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축주들도 있으나 철골조나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는 more

캐나다 목조건축 사례 1

목조 노인요양시설(Parkwood Mennonite Home)

한국은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이런 현상을 "실버 쓰나미가 오고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ore

I aiT AD

벽체의 건조(Drying)를 위한 벽 덮개의 틈과 구멍

벽체의 수분 관리를 위한 4D는 Deflection (편향), Drainage (배수), Drying (건조), 그리고 Durable Material (내구성 있는 자재)을 일컫는다. 4D의 기본 원리는 벽체 내부로의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처마, 플래싱 등으로 빗물 등이 벽체로부터 more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I 7월~9월 활동사항

- 7월 4일 ~ 12일
- 7월 23일
- 8월 9일 ~ 13일
- 8월 21일
- 8월 23일 ~ 9월 6일
- 8월 28일
- 9월 6일 ~ 10일
- 9월 13일
- 9월 14일 ~ 15일
- 9월 27일~10월 3일
- 9월 29일 ~ 10월 3일

- 국내 언론 및 디벨로퍼, 정부관계자 시찰단 캐나다 방문
- 제14회 한국목조건축학교 수료식 개최
- 안양시-경희대 건축학과-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2010' 개최 (사)한국목조건축협회-캐나다우드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 개최 서울시-아주대학교-캐나다우드 'Wood Design in Public Space'워크샵 개최
- 우드유니버시티 목조건축 구조설계 전문과정 수료식
- 제 2회 대구대학교 캐나다우드 제2회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 한국주거학회-캐나다우드 특별기획 세미나 개최 제6차 한국-캐나다 주택분야 협력위원회 참석 부산대학교-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 2010 부산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I 10월~12월 활동 계획

- 10월 9일
- 10월 20일 ~ 24일
- 10월 30일
- 11월 1일 ~ 5일
- 11월 23일
- 11월
- 기타 행사 및 전시회 일정 _10월 20일 ~ 10월 24일
 - _ 11월 4일 ~ 11월 7일

(사)한국목조건축협회-우드유니버시티 목조공동주택 전문가 과정 개강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 참가
-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캐나다우드 목조건축 기술세미나 개최
- 대원대학-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특강
- 목조 비내력벽(Wood Wall)의 시공 디테일 책자 개발

제5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 / KINTEX (캐나다우드 참가)

제5회 광주건축박람회 / 김대중컨벤션센터

Korea Director's Memo

정태욱 _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소장

지난 9월 14, 15 양일간 제6차 한국 - 캐나다 주택분야협력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 되었다.

한-캐 주택분야협력위원회는 2년에 한번씩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호스트하여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와 캐나다 주택청을 주축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주택분야 부서-기관들이 모여 양국의 주택정책과 주택에 대한 연구결과를 교환하는 자리이다.

금번 제6차 협력위원회는, 주 발표과제로 (1)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2) 노인들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양국의 주거복지정책, (3) 친환경 지속 가능한 주택 및 도시재생 그리고 (4) 최근의 주택기술 및 계획발전활동의 일환으로 진행 된 양국의 기술적 연구결과가 선정되어, 각국을 대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참석자 모두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캐나다의 주택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고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이(단독, 타운하우스 및 저층 공동주택) 목조건축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정책을 논의할 때 목조건축이 빠질 수 없다. 캐나다우드에서 진행한 한국, 일본 및 캐나다의 다층목조건축 분야의 혁신과 기술적 진보에 대한 연구와 캐나다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목조공동주택의 차음 연구를 캐나다 주택의 연구 사례로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녹색건축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방향의 하나로 목조건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금번 위원회는 2년 전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열렸던 제5차 협력위원회 때보다 더욱 진지했던 것 같다. 물론 국토해양부는 아직 녹색건축의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에만 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진정한 녹색건축을 구현** 하기 위해선 건축자재에 포함 된 내제에너지를 감안한 LCA(전과정평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깨닫기를 바란다. 또 그것이 환경선진국에서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대안임을 이러한 협력위원회를 통해 알게 되고 추후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제6차 한국-캐나다 주택분야협력위원회



특집기사 | 2010 캐나다우드 미디어/디벨로퍼 미션 참가

박선희 한국주거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나무와 목재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한 목재로 지을 수 있는 건축공간의 디자인과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캐나다에서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등등 이러한 물음에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 벤쿠버행 비행기를 타게되었다. 캐나다우드 협회에서 주선한 이번 미션 참가자는 학회관련 교수들 3인, 건축계 5인, 관련공무원 2인, 그리고 주택 및 건축디자인 미디어 관련 7인 도합 17명이었으며 일의 진행을 맡은 협회 주최자 및 통역자까지 약 20여명이 8박9일간(7월4일—12일)을 동행하게 되었다.

나는 2001년 벤쿠버의 UBC(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건축학과에 방문교수로 1년간 지낸 적이 있어 이곳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8년 만에 이렇게 다시 보리라 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건축학과에 여교수들이 많이 있고 도로 곳곳 건설현장에 여성들이 헬멧을 쓰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한국과 다른 이 곳 분위기가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음이 떠올랐다.

캐나다우드 협회에서 계획한 방문일정은 매우 빡빡하였다. 도착한 날과 떠나기 전날 자유시간을 준 것 이외에는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일정 계획에 거의 빈틈 이 없을 정도로 아주 충실한 프로그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그램 첫째날, 협회 사무실에서의 캐나다임업심의회 회장인 존 앨런은 아주 편안한 차림과 언사로 우리를 맞이하였다. 타운형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일행의 정면도 아닌 중앙 뒤쪽 출구 도어 앞에서 시종 겸손하지만 열정과 따뜻한 표정으로 임해주었다. 이러한 출발은 단장의 임무를 맡은 나의 긴장된 마음을 훨누그러뜨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기행을 할 수 있음을 직감하게 해주었다. 이어 소냐의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신재생 산림", 크리스 매톡의 "캐나다의 그린/넷제로 에너지 주택", 피터 무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재 해결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놀랐던 것은 한글로 된 파워포인트로 방문객들을 배려 한 것은물론 그 내용면에서도 아주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목조프로젝트의 중요성을인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일 오후에 방문한 UBC 내 산림과학센터는 거대한 목구조가 마침 화창한 오후 햇살이 그 깊은 공간에 쏟아져 들어와 목구조 공간의 풍부함과 따뜻함을 풍성하게 연출하고 있었다. 같이 간 일행들은 말없이 셔터를 연신 눌러대고 있었고 그 모습은 사실 이 공간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내 계단이나일부 연결 및 지지부분은 철재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오픈된 공간 사이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둘러앉아 무언가 토의를 하도록 배려한 그 모습은 생동감있고 이 역동적인 공간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빌딩을 나가서 바라 본외부 마감은 타일과 벽돌로 처리하여 주변 건축물 들과의 경관조화를 꾀하여서인지 전혀 목조빌딩이란 느낌이 없이 주변 캠퍼스 건물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있었다.



벤쿠버 스탠리공원의 토템폴



100년이 넘었지만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헤리티지 주택



참가자에게 인사하는 캐나다임업심의회 존앨런 회장

다음에 방문한 포린텍 임산물 연구소(www.forintek.ca)에서 보유한 목재스캐너는 세계 최대일정도로 통나무 전체를 방사선 스캔(log scanning)하여 내부의 모습을 완전 투사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스캐닝의 목적은 내부의 균열이나 해충침해 정도. 옹이의 분포 등 재목분석에 의한 사업적 활용성 여부 와 판단이 목적이다. 이러한 정밀기기의 성능이 알려지자 스틸부품까지 스캔 주문이 이어진다는 자부심 섞인 직원의 설명이 쉬지 않고 이어졌다. 이 지역의 목재에 대한 성능실험의 중추적 역할을 이곳에서 하고 있음이 쉽게 이해되었다. 다음에 간 곳은 UBC근처의 타운하우스 개발현장이었다. 벤쿠버 중에서도 이 곳 UBC 캠퍼스의 위치는 울창한 숲과 태평양바다를 끼고 있고 주변 단독주택지들이 전통적으로 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고급 주택지역인데다 학군이 좋아 캐나다 인은 물론 체류 한국인들까지 선호하는 거주지역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수요에 힘입어 새로 조성되는 4층 규모의 목조 타운하우스 단지는 평지붕에 석재와 목재. 시멘트판넬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전체 단지가 모던하면서도 조화롭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가장 상층부의 평지붕 처마를 길게 돌출하여 외관 의 건축형태의 미감향상은 물론 겨울철 긴 우기동안의 창문이나 벽면 보호가 가능한 효율적인 외관설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처마설계는 랭리지역의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 및 며칠 뒤 방문했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휘슬러의 '핏지몬스 워크'의 고급 목조주택단지들이 모두 그러하였다. 특히 휘슬러의 '레인보우' 듀플렉스 건설현장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이 곳 기후를 감안하여 외부에 돌출된 2층 목재 데크 계획시 빠른 시간 내에 쌓인 눈을 효율적으로 흘러내리기 위한 디테일까지 고려하고 있었으며, 지형적 특성상 언덕에 면하는 1층의 후벽은 콘크리트 방벽처리로 집을 위한 가장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므로써 목재만 고집하지 않는 통합적방식의 열린 사고로 임하고 있었다. 그러한 개방성과 철저함은 이미 목재의 등급산정 정책과이에 대한 건설사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 적용으로 주택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더 목표를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전제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설계의 방향이나 주안점은 건축적 명성을 위한 특이한 외관의 멋진 형태나 고급스러운 마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물위치가 필요로 하는 건축의 기본적 이론에 얼마나 충실한 과정을 적용했는가와 거주자의 가족친화적 내부 공간설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운하우스를 보는 동안 갑자기 한국의 어느 건축가가 한 말이 떠올랐다. "비가 오는날, 눈이 떨어지는 날, 내 집 창문을 열 수 없다면 그것이 집인가?" 캐나다 인들은 근대 건축의 이론 전 이미 오랜 세월 조상들이 남겨준 지혜를 전혀 거스 르지 않았다.

5일간의 일정으로 그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목조건축의 기술과 설계 및 가능성들 (리치몬드 빙상경기장, 스탠리파크의 공중화장실, 휘슬러도서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스쿼미시 어드벤쳐 센터, 베어마운틴리조트, 빅토리아의 전통주택들



UBC 산림과학센터 내부



UBC 캠퍼스에 있는 목조저층주택



휘슬러 레인보우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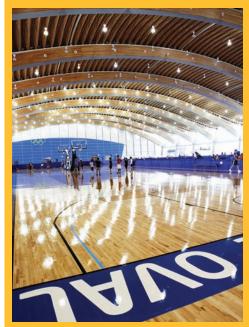
등)은 아주 훌륭하였다. 리치몬드 빙상경기장을 건축하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노력을 한 과정도 놀라웠고 내부는 물론 경기장 건축외관도 매우 아름다웠다.

이러한 건축물들을 통해서 목재라는 것을 기본적인 요소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와 의장적 요소를 결합하여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캐나다인의 수준과 기술은 보급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산층을 겨냥한 바이스로이의 목조주택공장은 이미 주택에 대한 총합적 디자인을 통하여 일등급 자재 및 시공과정의 효율성은 물론 주택규모별 경제적 구매가능성(Affordability)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회사의 운영정책을 충실히 관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한 회사운영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았고 참여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미션에서 무엇보다 나의 의문점이 해소된 것은 기실 목재가 나무의 속성은 지니되 그 수명이 다했을 때(노목:탄소작용최저) 완전히 다른 성능의 부재로 태어나 인간의 삶을 감싸준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잘못 건조되고 등급도 없이 성능이 의심스러운 값싼 목재의 수입과 기술 부족의 시공으로 목조주택의 인식이 열악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의 시행착오였을 뿐이다. 이제 건축이야말로 차별적 특성의 외관만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시대는 요구하고 있고 그 대안의 중요한 한 부분이 목조의 자리라고 해야 할 것같다. 이제 인간이 가장 생태적인 존재임을 자각한다면 덜 가공된 음식은 물론덜 가공된 유기적 공간 환경과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귀국비행기 창가에 앉아 북부 캐나다 대설원의 산맥이 펼쳐진 광경을 보며 이번 미션이 캐나다우드협회가 단순히 홍보용만이 아닌 지구환경의 공생적 차원에 있음을 알아차리게되었다.





지붕이 목구조인 리치몬드 오벌 빙상경기장



멀리 휘슬러의 스키장이 바라보이는 핏지몬스 워크



바이스로이 견학기념 단체사진

캐나다우드 대학연계교육 | 경희대 & 아주대-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최재철_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QA팀장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지난 8월 초 안양시 학운공원에서는 경희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이 5일간 흘린 땀의 결실을 축하하는 "2010 경골목구조 워크샵" 수료식이 있었다. 워크샵에 참가한 20여명의 학생들은 "60㎡가 넘는 시설물을 우리들의 힘으로 불과 4일 만에 완성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디자인하고 시공한 목조휴게시설에 대한 놀라움과 만족 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경희대 김관수 교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목조건축의 친환경성, 기술적, 시공적 지식은 학생들에게 접하기 힘든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앞으로 워크샵을 수료한 학생들이 지구의 환경파괴를 줄여주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대명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목조건축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8월 23일 캐나다우드는 경희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아주대학교 건축학부와 경골목구조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워크샵을 통해 학생들은 경골목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이론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캐나다산 구조재(S-P-F)를 이용해목재 파빌리온을 제작하는 실습교육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워크샵 기간 중에 비도 오고, 끊임 없는 못박기와 절단작업으로 육체적으로 많이힘이 들었고, 5일 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파빌리온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완성한 이 파빌리온이 향후에 서울시에 기증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사용할 생각을하면 그 동안의 피로가 확 풀리는 듯 해요."라며 완성된 파빌리온 앞에서 활짝 웃음을 보였다.

5일간의 워크샵을 통해 담당 교수들과 대학생들은 목조건축에 대한 이론뿐 아니라 나무를 만지고, 보고, 느끼면서 목재가 건축재료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체험했으리라 생각한다. 일찍이 마크 트웨인은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단다. 대학연계교육 프로그램의 목적도 단순히 대학생들에게 목조건축에 대한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목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이 형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6개 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경골목구조 워크샵 참여 학생 200여명이 작성한 설문조사 결과는 스스로 행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요소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디자인 한 것이 실물로 만들어지는 체험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골목구조 워크샵은 캐나다우드가 후원하는 대학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캐나다우드는 작년부터 국내 주요 대학교와 양해각서

경희대-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2010 사진



단조롭고 불편한 기존 정자시설(Before)



캐나다산 규격재 시공으로 변화되어 가는 정자시설(After)



완성된 휴게시설 내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경희대 학생들



워크샵을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는 정태욱소장

(MOU)를 체결하고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 목조건축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대학교에서 워크샵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학점도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일부에서 학기 교과목에 목조건축을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은 대학교와 학생들의 경골목구조 워크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다. 모쪼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목조건축의 발전을 이끌어갈 열정적인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활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에도 캐나다우드의 대학연계교육은 부산대, 대구대, 대원대 등을 포함한 전국의 5개 대학교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파빌리온에서 수료증을 들고 기념 사진

아주대-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2010 사진



절단된 부재를 레이아웃



절단된 부재 조립



교내 옥외공간에 목재 파빌리온 1차 조립



실습용으로 제작된 경골목구조 파빌리온

Did you know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강화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371호)"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단열재 두께 기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거실 외벽의 단열재 두께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어, 목재의 우수한 단열 성능과 경골목구조의 중공 단열 시공으로 인한 얇은 벽 두께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 mm, 괄호 안의 두께는 2008년 기준)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85(65)	100(75)	115(85)	130(100)

국내 목조건축 사례 | 목구조 상가주택의 가능성과 전망 - 백현동 상가주택

함승진_함스디자인 대표

그 동안의 현장경험에 비춰 볼 때 목구조 공법이 갖는 우수성을 확신하기에, 건축주들을 만나면 목구조 건축물의 장점들을 역설하곤 한다. 이에, 열린 마음 으로 시공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축주들도 있으나 철골조나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을 선호하는 건축주들이 적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건축 중인 상가주택이 국내에서 상가주택으로는 최초로 목구조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받는 듯하다. 그러나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를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백현동 주택의 경우도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할 때만 해도 노출콘크리트와 나무로 마감하는 식의, 요즘 유행하는 현대적 디자인의 콘크리트 구조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곧 건축주가 유럽 분위기의 이국적인 느낌이 있는 건물로 지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콘셉트가 확정되었으므로 지붕 구조를 살리면서 건축주의 요구대로 다락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구조로 짓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공법상의 이점 외에 다른 이점들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주변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전부 석재 건물 또는 노출 콘크리트 건물들이라 목구조를 택하면 우선 외관상 뚜렷이 차별화가 된다. 점포 임대를 전제로 하는 상가주택인 만큼 독특하고 산뜻한 목구조 건물이라면 임대에 유리할 것은 당연하다.

또한 건물의 콘셉트에 비추어 볼 때 베이커리(또는 카페)로 계획 중인 점포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게다가 친환경 소재의 건축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최근의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주변에 비해 높은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으리라는 점도고려하였다.

마침 건축주가 이에 흔쾌히 동의하여 목구조 건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건축주는 건물의 전 층을 목구조로 지을 것을 원했으나 콘크리트 골조와의 비용 차이로 인해 2층부터 목구조로 시공하였다. (대지 면적이 75평, 1층 면적은 32평, 2층과 3층 각층 면적이 37평이다).

임대에 유리할 거라는 예상은 적중하였다. 아직 완공 전이고 중심 상권에서 벗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제일 먼저 상가 임대에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주변의 다른 건축주들도 본 건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목구조를 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 우선 콘크리트 건축물에 비해 공정이 빠르고 내부 마감 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목구조라 콘크리트 구조보다 벽체의 두께가 얇아 내부 공간이 더 넓게 나온다는 것이다.

간혹 차음이나 내화 성능이 콘크리트 건축물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이번의 경우는 '캐나다우드'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 대로 시공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

현재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목구조가 친환경 건축이라는 사실은 대개 알지만, 우리나라 에서 목구조 건축물이라고 하면 아직 그 이미지가 전원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대지개요

_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62번지

_지역/지구: 택지지구

_대지면적: 246.50m2 (74.6 Py.)

설계개요

_구 조: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3층: 목구조

_건축면적: 123,23m² (37,28 Py.) 연 면 적: 369,38m² (111,74 Py.)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5.09㎡ (31.79 Py.) 옥내 주자장 17.84㎡ (5.39 Py.)

2층: 다가구 주택(2가구) 123,23m² (37,28 Py.) 3층: 다가구 주택(1가구) 123,23m² (37,28 Py.)



1층 콘크리트 구조 위 목구조 공사



목구조 외벽 스타코 마감 전 몰탈 양생

또한 상가주택 등 공용주택을 지을 때는 콘크리트 구조가 훨씬 튼튼하며 관리나 보수 면에서도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곧 일반인들 사이에서 목구조의 실용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의미가 된다.

목구조의 적용 범위를 단순히 거주 목적의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주택 등다른 용도의 공용주택으로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목구조 건축물의 장점과국내 법령상 목구조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 건축이란 면 외에도 구조가튼트하고 관리 및 보수 면에서 편리하다는 점 등이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침 '캐나다우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목구조 관련 세미나등이 목구조 건축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기회들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바란다. 또한 하루 빨리 목구조의 감리 시스템이 확립되어 법적ㆍ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백현동 주택이 국내에서 상가주택으로는 최초로 목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관심을많이 받고 있고, 시공자 입장에서도 그 의의와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앞으로 국내 목구조 건축의 활성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면 시공자로서 큰기쁨이겠다.



외부 마감 후 완성된 모습



측면에서 본 전경



정면도



좌측면도

캐나다 목조건축 사례 | 목조 노인요양시설(Parkwood Mennonite Home)

최재철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QA 팀장

한국은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이런 현상을 "실버 쓰나미가 오고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 프레이저 보건당국(Fraser Health Region)의 키스 맥베인(Keith McBain) 이사를 초청해 캐나다의 노령인구 정책 및 이들을 수용하는 목조 요양시설을 소개하는 기술 세미나를 가졌다. 맥베인 이사는 "앞으로 25년 안에 75세~ 84세 인구가 119% 증가할 것이며, 85세 이상 인구도 131% 증가할 것"이라며 노령인구를 위한 적절한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워터루의 파크우드 홈(Parkwood Mennonite Home) 목조 장기요양시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조건물의 한계(구조, 화재 등)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의 건축주는 "한정된 건축비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건축형태를 찾았었다"며 "구조적으로나 장식적인 효과를 생각할 때 목재가적격이라는 것을 컨셉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직감했다"라며 주 구조를 목조로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준공 후 건물에 대한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보더라도, 목조건축은 미리 예측된 건축비 한도에서 건축주가 모든 기능적인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파크우드 홈 장기요양시설은 총 96개의 실을 갖춘 2층 목조건물이다. 건물에서 뻗어 나간 3개의 윙(wing)은 1층에 한 개, 2층에는 두 개 구획되어있다. 각 윙은 32개의 실이 있으며 샤워 및 목욕시설, 식사실 및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설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 캐나다의 친환경건축물 평가기관인 그린글로브(Green Globes)로부터 "3 Green Globes" 등급을 받았다. 이 등급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친환경 평가기관 리드(LEED)의 "Silver" 등급에 해당한다.

_구조

이 건물은 전형적인 경골목구조로 벽구조는 2x6 스터드를 400mm 간격으로 배치했으며, 내부에는 16mm 내화석고보드를 대고 외부는 13mm 구조용 패널 위에 벽돌로 마감했다. 2층 바닥구조는 깊이가 400mm인 I—Joist 위에 16mm 합판을 대고 25mm 콘크리트 몰탈을 친 후 마감재로 마무리 했다. I—Joist 안쪽은 차음을 위한 단열재를 대고 16mm 내화석고보드를 시공했다. 이러한 바닥 시스템을 통해서 STC 57의 차음성능을 확보 할 수 있었는데, 이 수치는 음악소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도의 성능이다. 지붕구조는 목재 트러스와 서까래 위에 금속지붕재를 시공했다.



외부 전경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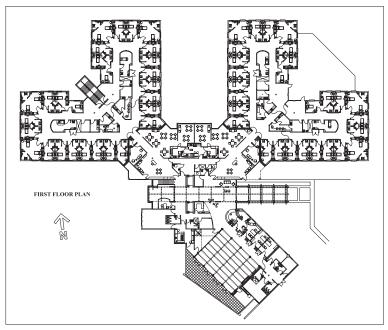
_내화

온타리오 주의 내화법규에 따라 이 건물은 2시간의 내화성능을 만족시켜야한다. 경골목구조는 이러한 내화규정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옵션을 제공했으며, 4개의 경골목구조 방화벽으로 건물 전체를 구획하였다. 건축 연면적은 7,330㎡이며 각 층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내 건축법규는 스프링클러시스템을 갖춘 목조건축의 최대 건축면적을 6,000㎡로 규정하고 있다.

_비용

파크우드 홈 건축주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바로 건축비였다. 따라서, 기본 설계도서가 작성된 후 이 프로젝트의 담당 건축가, 드와잇 랜더 (Dwight Lander)는 견적업체에 여러 건축시스템을 비교하는 견적을 의뢰했었다. 그는 "모든 건물에 필요한 과학적인 요소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저렴한 건축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식은 경골목구조였다"며 목조건축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파크우드 홈은 제한된 건축비로 최상의 품질을 가진 장기요양시설을 건축한 훌륭한 예다. 환경친화적인 목조건축은 요양시설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안락함과 안전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목재제품이 장기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효율적인 비용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층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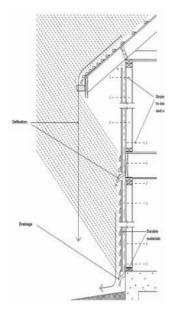


식사실

QA Tip | 벽체의 건조(Drying)를 위한 벽 덮개의 틈과 구멍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QA팀

벽체의 수분 관리를 위한 4D는 Deflection (편향), Drainage (배수), Drying (건조), 그리고 Durable Material (내구성 있는 자재)을 일컫는다. 4D의 기본 원리는 벽체 내부로의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처마, 플래싱 등으로 빗물 등이 벽체로부터 비껴 가도록 하고, 외부 마감을 통과해 침투한 수분은 레인스크린으로 쉽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래도 벽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이 있다면 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피치 못하게 수분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삼나무와 방부목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벽체 내부에 침투한 수분이 건조 될 수 있도록 외벽의 외부를 구성하는 목질 판재 (합판, OSB), 하우스랩, 사이딩 등의 자재는 모두 투습성이 있다. 하지만 벽 덮개로 사용되는 OSB의 투습성은 하우스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벽 덮개의 시공방법으로 벽체의 건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벽 덮개 간의 수평 조인트에 12 \sim 18 mm 의 틈을 두고 시공 (사진 1)
- 스터드 사이의 공간 상하에 지름 75 mm 구멍을 덮개에 천공 (사진 2)
- 틈과 구멍의 조합 (사진 3)

하우스랩의 수증기 투과도는 $3,646 \text{ ng/Pa} \cdot \text{s} \cdot \text{m}^2$ 으로, 11 mm OSB의 수증기 투과도 $44 \sim 200 \text{ ng/Pa} \cdot \text{s} \cdot \text{m}^2$ 에 비해 $20 \text{th} \sim 80 \text{ th}$ 정도의 높은 투습성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하우스랩의 높은 투습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덮개에 수평 조인트나 구멍을 천공하여 벽체 내부의 습기가 OSB에 막히지 않고, 투습성이 높은 하우스랩을 직접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시공방법이다.

건물의 층수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일수록 벽의 높이가 높아 쉽게 빗물에 노출이되고 벽체를 타고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빗물이 양이 많아지게 는 조건이 되고따라서 이러한 건조를 위한 디테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 1) 벽 덮개 조인트에12 ~ 18 mm 틈을 두어 시공하면 수증기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여 침투한 수분의 더 빠른 건조가 가능하다.



사신 2) 수증기의 확산을 위해 덮개에 75 mm 지름의 구멍을 스터드 사이 공간에 천공한다.



사진 3) 판재 조인트의 틈과 구멍이 조합된 경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7월~9월 활동사항

7월 4일 ~ 12일 _국내 언론 및 디벨로퍼, 정부관계자 시찰단 캐나다 방문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국내 언론 및 한국주거학회 임원, 정부관계자, 국내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모집하여 일주일간 캐나다를 방문하였다. 시찰단 의 방문은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목재 제품의 생산, 그리고 다양한 목조건축 및 복합건물, 특히 목조 단독 및 저층 공동주택 등의 견학을 통해 목조 건축의 시장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목조건축의 홍보와 국내에서의 활발한 목조건축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기사 참조)



목조건축 현장에서 시공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시찰단

7월 23일 제14회 한국목조건축학교 수료식 개최



인제군과 (사)문화도시연구소가 주최하고 (사)한국목조건축협회 및 회원사, 캐나다우드가 후원한 한국목조건축학교 수료식이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현장 에서 개최되었다. 제14회 한국목조건축학교에 참가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경골목구조 노인형 저에너지 공동주택 2동을 직접 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증하였 으며, 3주 이상 참가한 봉사자들은 수료식에서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8월 9일 ~ 13일 _안양시-경희대 건축학과-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2010'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경희대학교 건축학부와 협력하여 경골목구조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대학연계교육을 진행하였다. 2009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진행된 경골목구조 워크샵은 안양시에서 학운공원에 경골목구조 휴게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의 설계와 캐나다우드의 재료 및교육, 기술지원을 통해 기존의 단조로운 정자시설이 안락하고 편안한 지역 주민들의 휴게시설로 탈바꿈 하였다.



안양시 학운공원에서 수료식 후 기념사진

8월 21일 _(사)한국목조건축협회-캐나다우드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는 공동으로 제2회 대전건축박람회 기간 중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전지역의 일반인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주택 · 목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충남대학교 장상식 교수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목조건축' 발표를 시작으로 우드유니버시티 송재승 원장의 '경제적인 목조건축 설계', 스튜가이엔씨 김갑봉 대표의 '목조건축 품질인증', 건축사사무소 탑 최정만 소장의 '저에너지 건축기술 · 패시브 건축' 발표로 이어졌다. 세미나에는 약 180여명이 참석하여 친환경 자재 및 목조건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참석자에게는 캐나다우드 기술 책자 및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자료가 무료 배포되었다.

8월 23일 ~ 9월 6일 _서울시-아주대학교-캐나다우드 'Wood Design in Public Space' 워크샵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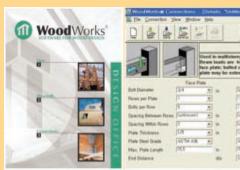
< C & / B D

2010년 8월 4일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아주대학교 건축학부와 산학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경골목구조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대학연계교육을 진행하였다. 8월23일부터 진행된 'Wood Design in Public Space' 워크샵을 통해 학생들은 경골목구조의 특성 및 시공법에 대한 이론교육 과 캐나다산 구조재(S-P-F)를 이용해 목재 파빌리온을 제작하는 실습교육을 받았다. 건축과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완성한 이 목재 파빌리온은 향후에 서울시에 기증되어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완성된 파빌리온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주대 건축과 학생들

8월 28일 우드유니버시티 목조건축 구조설계 전문과정 수료식



WDO과정의 WoodWorks Design Office Software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하는 우드유니버시티 'WDO-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이 8월 28일 종강과 함께 수료식을 하였다. 2010년 4월 10일부터 5개월간 진행된 목조건축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캐나다우드가 인정한 수료증 을 교부 받았으며, 앞으로 목조건축 관련 산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6일 ~ 10일 _제 2회 대구대학교 - 캐나다우드 제2회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2009년 6월 체결된 산학협력 협약에 따라 대구대학교와 캐나다우드가 공동으로 제2회 경골목구조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는 대구대학교 생명환경 대학 산림자원학과 학생 23명이 참가하여 5일 간의 경골목구조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수료하였고, 워크샵 기간 중 지어진 2 동의 소형 목조 건축물인 플레이하우스는 유치원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기증될 예정이다.



지붕 마감과 데크 난간 실습중인 대구대 학생들

9월 13일 한국주거학회-캐나다우드 특별기획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는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캐나다 친환경건축 전문가인 Ken Klassen(켄 클라슨)씨와 Keith McBain(키드 맥베인)씨를 초청하여 캐나다의 선진 친환경건축물의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기획세미나를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건축사 및 건축관련학과 교수 등 한국주거학회의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핵심인 Green Building에 가장 부합되는 목조건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9월 14일 ~ 15일 _제6차 한국-캐나다 주택분야 협력위원회 참석

2년마다 한번씩 양국간의 주택정책 및 주택에 대한 연구분야가 다루어 지는 제 6차 한국—캐나다 주택분야 협력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캐나다의 목조 건축분야 대표단으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소장, 캐나다우드그룹 폴뉴먼 전무, 캐나다국립연구소의 번트 자이틀러 연구원이 참석하여, 다층목조 주택연구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제6차 주택협력위원회 양국대표는 2015년까지의 양해각서를 맺고 지속적인 정부간의 협력을 약속하였다.

캐나다 목조건축분야 대표단으로 참여한 캐나다우드그룹 폴뉴먼 전무와 정태욱 한국사무소소장



9월 27일~10월 3일 부산대학교-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BEXCO 옥외전시장에서 실습용 소형 목조주택을 만들고 있는 부산대 건축학과 학생들

부산대학교 건축학과와 캐나다우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상네트웍스(부산경향하우징페어 사무국)와 캐나다관광청의 후원으로 진행된 경골목구조 워크샵이 2010 부산경향하우징페어 기간 동안 BEXCO 옥외전시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워크샵은 대학생에게 목조주택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부산하우징페어를 방문하는 일반인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및 목조건축 세미나가 포함되었다. 특히, 워크샵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제작한 실습용 소형 목조주택(Playhouse)은 부산대 보육종합센터, 부산시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산구화학교(장애어린이학교)에 기증되었다.

_9월 29일 ~ 10월 3일: 2010 부산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2010 부산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하여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목조건축 기술서적을 무료 배포하고 캐나다산 목재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를 하였다. 페어 기간 중에 벡스코(BEXCO) 다목적홀에서 10월 1일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공동주최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목조건축'이란 주제로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세미나 후 부산 및 경상지역 목조건축 전문인과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캐나다우드에서 개발중인 '목조 비내력벽 우드월'과 대학연계교육을 소개하는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벡스코에서 열린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 세미나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캐나다우드 활동사항을 소개하는 정태욱 소장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10월~12월 활동 계획

10월 9일 _(사)한국목조건축협회-우드유니버시티 목조공동주택 전문가 과정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후원으로 (사)한국목조건축협회-우드유니버시티의 'WBI-목조공동주택 설계,시공,감리 전문가 과정'이 10월 9일 개강을 한다. WBI과정은 2011년 3월 5일까지 양재동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목조건축관련 법규 및 기준에 준하여 경골목구조를 포함한 목조건축의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우드유니버시티의 교육 이수자는 캐나다우드와 한국목조건축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캐나다 현지 목조공동주택교육 (BCIT Training Course)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교육비를 제공받게 된다.

10월 20일 ~ 24일 _한국건축산업대전 2010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주최로 KINTEX에서 열리는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에 참가하여 캐나다산 목재를 소개하고 캐나다우드 발행 기술책자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2일에는 2년마다 한번씩 진행되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우드유니버시티 송재승 원장이 목조 주택 표준 상세를 소개하는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30일 _(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 캐나다우드 목조건축 기술세미나 개최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친환경 녹색성장과 목조건축"이라는 주제로 건축 설계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서울힐스테이트 강당에서 목조건축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우드 홈페이지 참조.

11월 1일 ~ 5일 대원대학-캐나다우드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는 대원대학과 공동으로 건축인테리어계열 건축전공자와 전공심화 학사과정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골목구조에 대한 이론 및 설계, 시공실습 교육 워크샵을 개최한다. 5일간의 워크샵은 대원대학 제천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이 동시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통해 소형 경골목조주택(Playhouse)을 제작하게 되며 완성 후 지역단체에 기증되어 유아들의 놀이시설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11월 23일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특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대학연계교육의 일환으로 정태욱 소장이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세대 서울 캠퍼스에서 특강을 한다. 특강에서 캐나다우드의 소개 및 건축자재로서의 목재 특성, 캐나다 및 국내의 목조건축 사례 등을 소개 하고 캐나다우드의 기술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목조 비내력벽(Wood Wall)의 시공 디테일 책자 개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행한 목조 비내력벽 소개 책자인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목조 비내력벽: 우드월 (Wood Wall)"에 이어, 목조 비내력 내벽의 시공 디테일과 시공법에 관한 책자 "우드월 파티션 (Interior Wood Wall Partition)"과 목조 비내력 외벽의 관한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기타 행사 및 전시회 일정

- 10월 20일 ∼ 10월 24일 : 제5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10 / KINTEX (캐나다우드 참가)
- 11월 4일 ∼ 11월 7일 : 제5회 광주건축박람회 / 김대중컨벤션센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7번지 203빌딩 3층 TEL: 02-3445-3834~5 FAX: 02-3445-3832 www.canadawood.or,kr